

성인 여성의 의복 폐기와 관한 연구

유연실

광주대학교 의상학과

A Study on the Women's Clothing Discard Behavior

Youn Shil Yoo

Dept. of Clothing, University of Kwangjoo

(1995. 10. 8 접수)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xamine the reasons of clothing discard and to investigate the influences of demographic and clothing variables on the clothing discard behavior. Data were collected from 610 women who lived in Seoul and Kwangjoo.

By means of factor analysis, 6 general factors of clothing discard reasons were extracted. The 6 factors were named as dissatisfaction with appropriateness, physically worn out, dissatisfaction with clothing quality, fashion change, boredom, inconvinience.

Among the five clothing items (suits or one pieces, jackets, jumpers, shirts or blouses, skirts or pants), there existed differences in the reason factors of clothing discard.

The relationships between clothing discard behavior (reason factors of clothing discard, periods of clothing utilization) and variables like user's age, degrees of satisfaction with clothing, clothing items were also examined. There existed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age groups and the groups classified by clothing satisfaction degrees in the reason factors of clothing discard and in the periods of clothing utilization. Periods of clothing utilization were also differed by the clothing items.

As user's age grew older, periods of clothing utilization increased and the rates of clothing discard because of dissatisfaction with appropriateness, dissatisfaction with clothing quality, boredom, inconvinience factors were decreased. As the degrees of satisfaction with clothes increased, the periods of clothing utilization also increased and the rates of clothing discard because of dissatisfaction with appropriateness, and dissatisfaction with clothing quality, inconvinience factors decreased. And the rates of clothing discard because of physically worn out factor increased.

I. 서 론

의류 소비 과정은 구입, 사용, 폐기로 구성된다. 복잡한 의사 결정 과정에 따라 여러 대안 중 선택된 한 의복은 소비자의 현재 의복 재고(wardrobe)에 추가되어 기존 의복과 함께 사용된다. 의복 사용 과정에서 소비자는 인지적 혹은 감정적으로 여러가지 경험을 하게 되며, 의복에 대한 만족도, 소비자의 개인적 특성, 외부적 환경요인 등에 따라 구입된 의복을 자주 착용하거나, 옷장 속에 걸어두기도 한다. Winakor¹⁾(1969)는 이러한 사장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의복의 사용은 지속적이 아니고 간헐적인 과정이 된다고 하였으며 사용 초기에 아무리 만족도가 높은 옷이라도 사용 후기로 갈수록 사장기간이 길어지고, veverka²⁾(1974)는 의복의 현 가치가 보관 유지 비용보다 낮아지면 폐기하게 된다고 하였다.

Hanson³⁾(1980)은 폐기 과정은 개인적 특징, 물리적 사회적 심리적 상황, 대상의 현 가치등의 상호 관계하에 구입 과정과 유사하게 대상에 대한 속성 평가 과정을 거친다고 하였는데, 의복과 같은 상품은 스타일의 구식화와 같은 속성에 대한 평가가 폐기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각 상품 범주 별로 폐기 평가 기준이 다르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의류학 분야에서는 소비자의 의복 폐기 단계 자체에 대해 연구한 논문이 거의 없고, 최근 십 소연⁴⁾(1995)이 Hanson³⁾(1980)의 폐기 단계 분류에 의한 폐기 결정 단계에서 의복의 구체적 폐기 방법에 대하여 연구한 논문이 있을 뿐, 의복 폐기의 탐색 및 평가 단계에 폐기 의사의 결정하는데 어떤 평가 기준이 사용되는 가에 대한 연구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다.

경기 침체와 사회적 여건 변화로 사치와 과시적 소비 보다는 투자한 돈에 비한 상품의 가치를 추구하는 합리적인 소비자가 많아지고, 환경 보호와 자원 절약을 위한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소비자가 의복을 폐기하는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를 규명하고, 이러한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면 자원의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쓰레기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경제성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킴으로서 상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의류 소비자들이 어떤 원인 즉 평가 기준들에 의해 폐기할 의복을 결정하고 의복 범인과 착용자 범인에 따라 의복 폐기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규명해 볼으로써 의류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새로 구입한 의복은 일정 기간 사용하다 보면 착용빈도가 줄어들고 옷장 속에 걸려있는 시간이 길어진다. 즉 의복의 효용이 감소되어, 폐기로 이어지는데 이러한 효용 감소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자주 착용하는 옷이라도 옷장 속에 걸리는 기간은 항상 존재하며, 사장 기간이 길어지는 시점의 한계가 불분명하고, 사장되었던 옷도 그 의복과 조화가 잘되는 새 의복을 구입하게 되면 재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사장 기간이 길어지는 원인, 즉 폐용의 원인보다는 이미 없었거나 없애버릴 의사가 명백한 시점의 폐기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Hanson³⁾(1980)은 폐기 과정을 문제 인식, 탐색 및 평가, 폐기 결정, 폐기 후 결과의 4 단계로 분류하였다. 문제 인식과정은 폐기 동기가 유발되는 과정으로 사용이나 새상품 구입, 기능과 스타일의 구식화등에 의해 폐기 의사가 형성되는 과정이고, 탐색 및 평가 과정은 구입시의 평가 과정과 유사하게 각 속성들을 폐기와 관련시켜 평가하여 폐기 결정에 대한 각 속성들의 중요도를 평가한다. 폐기 결정 과정은 폐기 방법을 결정하는 단계로서 수입의 변화, 보관장소의 부족 등 상황 요인의 영향을 받고, 폐기로 인한 위험 부담등의 영향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폐기행동이 자연되거나 변화될 수 있다. 폐기 후의 결과 단계는 폐기행동에 대해 후회하거나 강화를 하는 단계이다.

이 연구에서는 Hanson에 의해 제시된 폐기 단계 중, 탐색 및 평가 과정을 중심으로, 대상 상품 범주를 의복에 제한하여, 상품 구입시와 유사한 과정을 거치는 폐기 평가에서 평가 대상이 되는 주요 속성들이 무엇이며, 그 속성들의 중요도는 어떠한지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폐기 시점의 평가 기준은 폐용시나 사용시 구입시 의복에 대한 평가 기준과도 관계가 있을 것이므로, 연구 결과가 축적되어 있는 의복 구입, 사용시의 평

가 기준을 살펴보고, 이러한 기준에 의해 평가한 의복 효용의 상실과정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의복에 대한 평가 기준

과거, 상품의 소비경험에 대한 연구는 정보처리적 관점으로 중심으로 합리적 이성적인 소비자 행동에 대해 주로 연구하여 왔다. 그러나 Holbrook, Hirschman⁵ (1982) Batra, Ray⁶ (1984) 등은 정보적 관점뿐 아니라 경험적 관점도 소비 경험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특히 오락, 예술, 패션 디자인과 같은 상품의 소비는 쾌, 불쾌, 새로움, 삶증, 혐오와 같은 감정변화를 동반하여 이러한 감정이 소비경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고 하였다.

사용시의 소비자 행동 연구의 핵심 위치를 차지하는 만족의 개념도 사용시 상품의 수준이나 품질이 구매전 기대와 일치하는지를 인지적으로 비교하는 인지적 차원 일과 동시에 좋다 - 나쁘다라는 감정적 차원의 일부분이다. (Oliver⁷, 1980)

이러한 소비 경험의 양면성은 평가 기준에 있어서 종래의 정보처리적 관점인 상품이 지닌 속성의 욕구 충족 효과, 즉 유용성을 중심으로 하는 평가기준과 함께 감정적 측면의 평가기준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Burns⁸ (1994) 등은 구매전 평가는 다속성 이론과 유사하여 속성 위주의 인지적 평가를 주로 하고 구매 후에는 상품 전반에 대해 감정적인 평가를 주로 한다고 하였다.

소비자들의 의복에 대한 평가도 일반 상품과 마찬가지로 의복 자체가 지닌 속성, 즉 의복의 색, 디자인, 무늬, 섬유의 종류, 맞음새, 재단, 봉제, 내구성, 내 세탁성, 적합성, 유행성 같은 기준에 의거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인지적 평가와 마음에 든다, 안든다, 편하다, 불편하다, 삶증난다, 새롭다와 같이 각 속성들을 종합하여 종체적으로 평가하는 비이성적, 감정적 평가가 존재한다.

최신형⁹은 의복 착용을 통해 소비자들이 느끼는 감정에는 내부지향 쾌, 외부지향 불쾌, 내부지향 불쾌, 외부지향 불쾌, 수동적 정서, 능동적 정서, 긴장감 등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상품 평가의 인지적 측면과 감정적 측면을 포함하여 평가 기준의 차원을 정리한 이론으로 Means – End Theory가 있다. 이 이론이 제기되기 전, Cowl-

ing¹⁰ (1971) Maynes¹¹ (1976) 등은 상품 평가 기준에는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기본적인 속성 수준과 소비자가 상품에서 얻고자 하는 서비스나 유용성 수준이 있다고 하였는데 Olson & Peter¹² (1987), Gutman¹³ (1982), Zeithaml¹⁴ (1988) 등은 이 단계들을 Means – End Theory로서 설명하였다. 즉 소비자들이 상품의 효용을 판단할 때는 최종적인 추구 목적을 설정하고,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인 필요 속성을 상품이 어느 정도 소유하느냐는 기준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에서는 상품 평가 기준이 속한 단계를 속성, 결과, 가치의 3단계로 나누고, 속성이 초래하는 결과 가워치하는 계층에 따라 효용이 달라지며 가장 바람직한 결과는 핵심 가치, 목표 상황을 이루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Burns⁸ (1994) 등은 상품 사용에 따라 평가 기준의 단계가 변화하는데 구매전 평가는 다속성 이론과 유사하게 수단 목적 사슬에서 하위 계층에 속하는 속성 위주의 내재적 평가 기준을 사용하고 구매후에는 상품에 대한 정보가 좀더 종합화되어 상품 전반에 대해 평가하게 되며, 수단 목적 사슬의 상위 계층으로 이행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평가 기준의 단계는 의복에서도 나타나 -yan¹⁵ (1966)은 소비자의 선호와 만족의 평가기준에는 의복의 색채, 섬유, 재단 등의 앞서 언급한 바, 속성 수준과, 의복의 내구성, 관리의 편리성과 같은 결과 수준의 평가 기준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김 미영¹⁶ (1992)은 Cowling¹⁰ 등이 서비스와 유용성으로 언급한 수준을 추구 잇점 수준으로, 이 추구 잇점을 형성하는 구성 요소들을 구성 요소 수준으로, 이를 2가지 수준을 연결시켜주는 특성을 중간적 연결 수준으로 구분하였다. 추구 잇점 수준의 평가 기준은 의복의 유행성, 품위, 관리 및 세탁의 용이성, 편안함, 내구성으로 나누었는데, 이를 추구잇점을 Means – End Theory와 연결시키면, 기능적, 추상적 결과 수준으로 연결되며, 구성 요소 수준은 스타일, 색채, 섬유, 조직, 재단 등으로 속성 수준과 연결되고, 중간적 연결 수준은 내 세탁성, 내 필링성 등으로 기능적 결과 수준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의복에서 Means-End Theory의 가치 수준에 해당하는 평가 기준에 대한 연구는 거의 볼 수 없으나 감정적, 쾌락적 측면의 의복 소비에 대한 연구나 의복 착용

동기에 대한 연구는 가치 수준의 평가 기준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제공해 줄 것이다. 예를 들면, 동조성, 개성 추구, 다양성 추구, 혁신성 추구 등은 소속욕구나 자아실현 욕구 등과 관련되어 핵심 가치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종래 의복 평가 기준에 대한 연구는 주로 구입시의 기준을 중심으로 앞서 언급한 평가 체계의 전제 없이 연구 대상이나 의복 종류에 따라 다른 기준들을 제시하였다.

Finalayson¹⁷⁾(1966)은 의복의 중요한 제품 속성으로 나에게 어울림, 주위 사람들의 칭찬과 같은 사회 심리적 속성, 아름다움에 관한 심미적 속성, 손질과 관리의 용이함, 값싸고 오래 입을 등 실용적 경제적 속성 등이 있다고 하였으며, Blackwell, Hillker¹⁸⁾(1978)는 드레스의 경우 색, 맛음새, 가격, 옷의 관리 방법, 재단 방법이 중요한 평가 기준이니, 캐주얼 복의 경우는 옷의 맛음새가 팬티의 경우는 모양과 편안함이 중요한 기준이라고 하였다. Stemmn¹⁹⁾(1980)은 독신 여성을 대상으로 사회적 모임에서 입는 의복과 직장복의 구매시 평가 기준이 무엇인가를 18개 평가 기준, 즉 착용자에의 적합성, 옷의 맛음새, 편안함, 착용 상황의 적합성, 타인의 승인, 이성에게 매력적인가, 품위, 유행, 미(아름다움), 관리 및 세탁의 용이성, 값에 비해 좋은 옷을 사는가, 내구성, 가격, 색, 섭유의 종류, 재단의 질, 직물의 종류와 질, 상표명을 가지고 조사한 결과, 사회적 모임에서 입는 의복의 경우는 착용 상황의 적합성이 직장에서 입는 의복의 경우는 옷의 맛음새와 착용 상황의 적합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 홍금희²⁰⁾(1992)는 의복 구매시와 사용시의 평가 기준으로서 옷감의 종류와 질, 색상, 재단과 봉제, 몸에 맞는 정도, 옷의 관리와 세탁방법, 활동하기에 편함, 입어서 마음이 편함, 내구성, 유행 감각, 나에게 어울림, 디자인, 그 옷을 입을 상황에 적합함, 다른 사람들과 반응, 상표, 품위 있음, 값에 비해 좋은 옷을 심등을 사용하였다.

2. 사용에 따른 의복 효용의 상실

옷장 속에 많은 옷들이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입을 옷이 없다라는 말을 하고,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폐기하게 된다. Conklyn²¹⁾(1971)은 동일 구매자를 구매 시점부터 3~4달 동안 추적 조사하여 구매한 의복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는

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직물의 외관, 색상, 스타일, 구성의 질, 맛음새와 편안함의 평균 점수가 낮아져 점차 불만족이 커진다고 하였다.

이렇게 증가하는 불만족의 원인은 1절에서 언급한 평가 기준들에 따른 평가의 결과인 의복의 효용이 점차 하락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2절에서는 의복 효용의 상실 현상과 그 원인을 심리적·사회적·물리적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McAlister²²⁾(1982)는 한 상품의 소비는 상품이 지니는 속성을 통해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가치를 지니며, 한 상품을 반복 사용할 경우 그 상품이 지니는 속성의 재고가 축적되어 선호를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반 내구재인 의복에도 적용되어 한 의복의 반복 착용에 의한 속성 재고 축적은 의복에 대한 선호를 감소시켜 효용을 상실시킨다. 이러한 현상은 소비자의 새로움이나 다양성 추구 행동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제공해주고 새로움이 그 자체로서 소비자에게 가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의복에서의 새로움 추구나 삶의 또 다른 배경을 형성하는 이론에는 Optimum Arousal 이론이 있다. 이 이론은 Raju²³⁾ 등에 의해 제기되었는데 인간은 각기 다른 적정 자극 수준을 가져 적정 자극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선택을 행하며, 적정 수준을 넘는 자극을 반복 되면 긴장하고 적정 수준에 못미치면 삶의 즐거움을 느끼며, 적정 자극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새로운 대상을 찾는다는 이론이다.

위의 두 가지 이론이 의복 사용의 시간에 따른 심리적 효용의 상실과 삶의 즐거움 현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나, 의복이 사회 생활에 있어 착용자의 정체감을 표현하고 무성의 언어로서 착용자의 성, 연령 등은 물론 사회적 지위, 경제적 능력, 생각이나 가치관, 소속집단 등을 나타내는 만큼, 사회적 효용도 의복의 중요한 가치 측면을 형성하고 있다.

1절의 의복에 대한 평가 기준을 살펴보더라도 타인의 반응, 적합성, 이성에의 매력, 품위, 유행 등이 사회적 효용과 관계되는 평가 기준들인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락되는 사회적 효용의 상실요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유행 변화나 사회적 적합성 변화를 들 수 있다.

의복의 유행 변화는 소개기, 전파기, 절정기, 쇠퇴기, 폐지기의 단계를 거치면서 후기로 갈수록 기존 의복의 사회적 효용을 저하시킨다.

Sproles²⁴⁾는 유행이 폐지되는 원인, 축소시켜 해석하면 개별 의복의 폐기 원인으로 연결되는 원인들을 새로운 패션 상품의 등장,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유행 수용 정도의 변화, 유행 경향의 사회적 종료, 물리적 폐기라고 주장하였다. 위의 5가지 원인 중, 물리적 폐기,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제외한 다른 세 가지 원인은 유행 변화에 따른 사회적 효용의 상실과 관련되고,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는 의복 착용 상황을 변화시켜 기존 소유 의복을 입지 못하게 함으로서 의복 효용을 하락시킨다. 연령 증가나 사회적 신분 상승 시 기준 소유 의복이 어려보인다거나 젊잖지 못하여 안 입게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Ryan²⁵⁾(1966)은 의류 제품에 대한 불평 행동의 대부분은 도구적, 물리적 기능의 불충족에 의해 일어난다고 하였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불평 행동은 직물이나 의복 생산 기술이 발달한 현대에도 의복의 물리적 성질이 사용자들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폐기의 직접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Francis & Dickey²⁶⁾(1984)는 의복을 구매하여 세탁 전과 세탁 후에 만족 기준에 차이가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 세탁 전 집단은 표현적 만족 요인이 35%를 차지하고, 세탁후 집단은 도구적 만족 요인이 39%를 차지하여 도구적 만족 변인을 판단할 기회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만족 요인이 다르다고 하였다. Swan, Comb²⁷⁾(1976)는 도구적 성과가 불만족한 경우 표현적 성과에 관계없이 의복에 대해 불만족하게 된다고 하였다.

신소재의 개발과 가공 기술의 발달등으로 의복의 물리적 수명이 연장되고, 유행으로 인해 의복의 사회적 수명이 감소되어 떨어져서 뜻입는 의복은 없다고 하나, 아직도 소비자들에 의해 내구성, 형체 유지성면에서 인조 섬유에 비해 뒤떨어지는 천연 섬유가 애호되고, 인조 섬유 역시 필링 발생이나 오염 축적 등의 문제점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반복 착용이나, 세탁 후의 의복은 구매 직후와는 다른 후줄그레한 느낌을 갖게하고 이러한 미묘한 차이가 의복의 물리적 효용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III.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의류 소비자들이 한 의복을 폐기하려는 시점에서의 다음 연구 문제들을 규명해 보고자한다.

- 1) 일반 의복 폐기 의사 결정 요인을 규명한다.
- 2) 의복 유형 별 폐기 의사 결정 요인을 규명한다.
- 3) 의복 폐기 의사 결정 요인과 의복 사용기간의 의복 폐기 행동이 의복 유형, 착용자의 연령, 대상 의복에 대한 사용 당시의 만족정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 본다.

2. 용어 정의

의복의 폐기: 소유자에 있어 특정 의복의 효용이 상실되어 더 이상 소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상태.

의복 사용 기간: 의복을 구입한 후 폐기 의사를 갖기까지 소요된 기간.

3. 측정 도구

앞서 언급한 연구 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설문지는 폐기 의복에 대한 부분과 착용자에 관한 부분으로 구성되었는데 폐기 의복에 대해서는 최근 폐기하였거나 폐기할 의사가 있는 외출복 어느 한 벌에 대하여 의복의 종류, 사용기간, 구입가격, 사용시의 만족정도를 질문하였고, 대상 의복의 폐기 원인에 대한 28문항의 질문지를 제시하였다. 의복의 종류, 사용기간, 구입 가격에 대한 질문을 제외하고는 5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이 밖에도 나이, 결혼 여부, 본인의 직업, 교육 정도, 소득 등을 조사하였다.

의복 폐기 원인에 관한 질문지를 작성하기 위해, 의복 구매 평가 기준¹⁶⁾, 의복 성과²⁰⁾, 의복 구매 불안²⁸⁾, 의복 관여^{29,30)}, 의복 구매나 사용시 불만족 경험^{31,32)}에 관한 기준 척도를 참고하고, 의상 전공학생 52명에게 폐기했거나 폐기할 의사가 있는 옷을 한가지 씩 정한 후, 그 옷의 폐기 원인을 자유 기술하게 하여 연구자가 종합 분석하였다. 또한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한 sproles²⁴⁾의 유행 폐기 원인과, 유행 변화의 심리적 원인들을 자유 기술 문항에서 빠졌을 경우 추가하였다. 폐기가 의복 구입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이루어지는 특

성을 고려하여, 가격이나 상표 등 의복의 비본질적 특성에 대한 질문들은 제외시키고, 의복 자체의 본질적 특성에 의한 성과와 착용자의 감정적 소비 경험에 대한 질문들을 주로하여 구성하였다. 의복 폐기 원인에 대한 질문들이므로 소비자들이 만족한 부분보다는 불만족한 부분에 대한 질문들의 비중이 크다. 이렇게 개발한 질문지를 60명의 여대생들에게 예비 조사하여, 문항간 상관이 너무 높거나, 변별력이 적은 문항을 제외하고 의류 분야의 전문가 5인에게 타당도를 점검 받은 후, 최종적으로 28문항을 설정하였다.

의복 폐기 원인 부분 설문지의 내적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는 .8250으로 사용에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4.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설문지는 1995년 5월 24일에서 6월 3일에 걸쳐 서울과 광주 지역에 거주하는 여자 대학생 290명, 미혼 사무직 여성 69명, 전업주부 102명, 취업주부 119명과 기타를 대상으로 610부를 조사하였다. 응답자의 연령은 18세에서 58세 까지이며, 20세 이하가 23.6%, 21~30세가 46.4%, 31~40세가 18.4%, 41세 이후가 11.6%를 차지한다. 대학생 연령인 18세~22세 이하는 248명으로서 전체의 42.9%를 차지한다.

교육 수준은 중학교 졸업 이하가 1.8%, 고등학교 졸업 및 종퇴가 23.1%, 대학 재학, 종퇴 및 졸업이 70.7%, 대학원 재학 및 졸업 5.2%, 교육 수준을 기입하지 않은 사람이 1.3%이다.

자료 분석은 SPSS 통계 Package를 사용하여 요인 분석, Pearson 상관관계, 공 변량 분석, 일원적 변량 분석과 Duncan Test를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일반 의복 폐기 의사 결정요인

610부의 설문지 전부를 가지고 일반 의복에 대한 폐기 의사 결정 요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각 문항별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계산한 후,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의복 폐기 원인에 대한 평균 점수가 높은 문항에서 낮은 문항의 순서로 정리한 결과와 각 문항별 표준 편차는 <표 1>과 같다.

표에서 보면 가장 평균 점수가 높은 문항은 25번 문

항 즉 새로 산 다른 옷이 있어서 거의 안입게 된다이다. 이것은 새로운 유행 출현에 의한 마케터의 신상품 소개, 새로운 착용 상황 등장, 호기심, 자기 표현 욕구, 기분 전환 욕구, 충동 구매 등의 여러 원인으로 인한 새 의복 구입이 유사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기준 의복을 사 장시키고, 결국 폐기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새 의복 구입의 문제인지 단계에 대해 좀 더 심층적, 구체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을

<표 1> 의복 폐기 원인의 문항 별 평균 및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25. 새로 산 다른 옷이 있어 거의 안입게 된다.	3.538	1.076
12. 디자인이 유행이 지났다.	3.360	1.077
3. 색/무늬의 유행이 지났다.	3.334	1.133
15. 옷의 디자인에 짚증났다.	3.314	1.020
27. 이 옷을 입을 기회가 거의 없다.	3.294	1.076
20. 옷의 색/무늬에 짚증증 났다.	3.218	1.076
22. 내 취향이 바뀌었다.	3.150	1.117
17.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3.047	1.150
4. 다른 옷과 조화시키기 힘들다.	3.043	1.112
8. 입었을 때 마음이 편하지 않다.	2.960	1.107
19. 옷이 그 옷을 입을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	2.952	1.059
6. 이 옷을 많이 입었더니 더이상 입고 싶지 않다.	2.910	1.159
23. 디자인이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2.909	.996
7. 옷감의 유행이 지났다.	2.782	1.056
10. 색/무늬가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2.781	.949
5. 색/무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2.771	1.080
21. 색이 바래고 보풀이 생겼다.	2.744	1.150
16. 이 옷을 입으면 거추장스럽고 활동하기 불편하다.	2.728	1.131
26. 오래 입었더니 옷의 형이 변했다.	2.713	1.096
18. 치수가 잘 맞지 않는다.	2.676	1.127
24.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좋지 않다.	2.616	.894
13. 내 나이나 신분, 직업에 맞지 않는다.	2.566	1.032
2. 옷을 관리하고 세탁하기 힘들다.	2.547	1.147
1. 옷감의 종류와 질이 좋지 않다.	2.429	.995
28. 옷이 너무 두껍거나 무겁다.	2.397	1.017
9. 세탁에 의해 치수가 변했다.	2.382	1.016
11. 재단과 봉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2.382	.982
14. 단추나 지퍼 등 부속품이 고장났다.	2.208	1.016

* 문항 점수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제기한다.

2번째로 평균 점수가 높은 문항은 12번 문항으로 디자인이 유행이 지났다이고, 3번째는 색무늬의 유행이 지났다이다. 가장 평균 점수가 높은 새 의복 구입 역시, 유행 변화 요소를 포함하는 상황에서 2, 3번째 문항 또한 디자인 색 무늬의 유행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했듯이 유행 변화가 의복 폐기의 주된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번째의 디자인이 싫증 났다라는 문항은 6번째 옷의 색 무늬에 싫증 났다와 함께 평균 점수가 높아 싫증이 의복 폐기의 중요 원인이며, 5번째는 이 옷을 입을 기회가 거의 없다는 문항으로서,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인한 의복 취용 기회의 상실로 의복의 사용 기간이 길어지고 폐기로 이어지는 현상을 짐작케 한다.

앞 질문지의 응답 결과를 가지고 요인 분석을 실시하-

여 일반적인 의복 폐기 의사 결정 요인이 무엇인가를 알아보았다. Eigenvalue와 Scree Plot을 참고하여 적절한 요인 수를 추출하고, Varimax Rotation을 시킨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적합한 요인수는 6개로, 6개의 요인이 총 변량의 52.7%를 설명하고 있다. 추출된 요인에 대해서 요인 1은 적합성에 대한 불만, 요인 2는 물리적 효용감소, 요인 3은 유행 변화, 요인 4는 품질 불만, 요인 5는 싫증 및 취향 변화, 요인 6은 불편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즉, 의류 소비자가 의복을 폐기할 의사로 갖게 하는 결정 요인으로서 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자신에게 부적합하여, 그 옷을 입을 기회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적합성에 대한 불만 요인이 전체변량의 19.4%를 차지하여 가장 설명력이 크고, 그 다음은 의복을 자주 입거나 여러 번 세탁하며 소매의 팔꿈치 부분, 엉덩이 부분이 튀

<표 2> 일반 의복 폐기 의사 결정 요인

요인 1 적합성에 대한 불만	요인점수	요인 2 물리적 효용감소	요인점수
23. 디자인이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661	26. 오래 입었더니 옷의 형이 변했다.	.786
13. 내 나이나 신분, 직업에 맞지 않는다.	.619	9. 세탁에 의해 치수가 변했다.	.770
10. 색/무늬가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609	21. 색이 바래고 보풀이 생겼다.	.753
19. 옷이 그 옷을 입을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	.588	14. 단추나 지퍼등 부속품이 고장 났다.	.609
4. 다른 옷과 조화시키기 힘들다.	.542		
24.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좋지 않다.	.522		
27. 이 옷을 입을 기회가 거의 없다.	.498		
	19.4%		10.5%
요인 3 유행변화	요인점수	요인 4 품질불만	요인점수
3. 색/무늬의 유행이 지났다.	.806	5. 색/무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660
12. 디자인이 유행이 지났다.	.786	17.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572
7. 옷감의 유행이 지났다.	.696	11. 재단과 봉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553
	7.9%	1. 옷감의 종류와 질이 좋지 않다.	.525
			5.5%
요인 5 싫증, 취향 변화	요인점수	요인 6 불편	요인점수
25. 새로산 다른 옷이 있어 거의 안입게 된다.	.727	16. 이 옷을 입으면 거추장스럽고 활동하기 불편하다.	.798
15. 옷의 디자인에 싫증 났다.	.590	2. 옷을 관리하고 세탁하기 힘들다.	.724
22. 내 취향이 바뀌었다.	.582	8. 입엇 마음이 편하지 않다.	.494
6. 이 옷을 많이 입었더니 더 이상 입고 싶지 않다.	.560	28. 옷이 너무 두껍거나 무겁다.	.432
20. 옷의 색 무늬에 싫증났다.	.536	18. 치수가 잘 맞지 않는다.	.330
	4.9%		4.5%
총 설명력 (%)	53.7%		

* 각 요인별 문항 하단의 %는 총 변량에 대한 설명력

어나오거나, 웃감이 낡아 보풀이 생기고 색이 바래고 단추, 지퍼 등의 부속품이 고장나는 물리적 효용감소 요인이 전체 변량의 10.5%를 설명하고 있다. 세번째로 유행 변화 요인이 7.9%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데 유행 요인에서는 색/무늬, 디자인, 웃감 순으로 요인 점수가 줄어들어 유행에서도, 색/무늬가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실루엣보다 색, 디테일의 유행 주기가 짧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대상을 지각할 때 가장 강하게 반응하는 요소가 색채이며, 유행 경향을 결정 할때도 2년 전쯤에 디자인이나 재질에 앞서 가장 먼저 예측하는 현상으로 미루어 볼 때 타당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네번째로 설명력이 큰 요인은 품질 불만 요인으로서 충동 구매나 싼 가격, 쇼핑 시간 압박등의 요인들로 인하여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의복을 구매하여 의복 사용 초기부터 의복 자체의 여러 속성에 대하여 불만을 느낀 결과, 의복이 폐기된다는 것이다. 요인 5는 짙증이나 취향 변화 등의 심리적 동기가 의복 폐기 원인이 되는 것을 나타내며 총 변량의 4.9%를 설명하고 있다. 요인 6은 불편요인으로 의복이 활동, 관리, 심리적인 면에서 불편을 주어 그 의복을 착용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껴 폐기하는 것이라 설명할 수 있다.

종합해서 볼 때 요인 2, 3, 5는 반복 사용이나 시간 경과에 의한 효용 감소가 폐기 원인이 되는 반면, 요인 1, 4, 6은 의복 자체에 대한 불만이 폐기 요인이 되고 있다. 즉 구매 직후나 사용 초기부터 느끼는 의복에 대한 불만이 의복 사용을 저하, 폐기로 이어지는 경우로 소비자 측면에서나 나아가서는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폐기하게 되어 경제적인 손실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 세 요인들은 총 폐기 원인의 29.4%를 설명하는데 이러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소비자들은 의복 구매시 좀 더 신중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으며, 판매자들은 판매 실적 향상에만汲汲하지 말고, 의복 구매시 보다는 사용시의 소비자 요구 사항에 대한 연구를 하여 이에 맞는 상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문적인 소양을 갖춘 패션 컨설턴트들을 고용하여 소비자들이 이를 잘 이용하게 함으로써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2. 의복 유형 별 폐기 의사 결정 요인

일반 의복 폐기 의사 결정 요인에서는 의복 유형에 관계 없이 일반 의복 전체에 걸친 폐기요인들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의복 용도나 유형에 따라 폐기 요인은 조금씩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연구 문제 2에서는 의복을 투피스나 원피스등 정장류, 자켓류, 점퍼류, 셔츠 티셔츠나 블라우스류, 스커트나 바지의 5유형으로 나누어, 각 의복 유형에 응답한 응답자들의 질문지 반응을 모아 요인 분석하였다. 주성분 분석에 의해 주요 요인을 추출하고 Eigenvalue와 Scree Plot를 이용하여 적절한 요인수를 알아내어 직교회전을 시킨 결과는 <표 3>과 같다. 추출된 요인 중 한 문항으로 형성되어 있는 요인들은 제외시키고, 요인 부하량이 0.4 미만인 문항도 제외시켰다.

먼저 정장성 측면에서 정장-캐주얼 웨어의 양극에 위치하는 원피스와 투피스 등 정장류와 점퍼류를 비교 분석하여 보면, 정장류는 어울림 선호와 같은 미적 속성에 대한 불만, 유행 변화가 가장 중요한 의복 폐기요인으로서 합계 26%의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이 물리적 효용감소, 짙증, 불편 순서로 중요 폐기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비해 점퍼류는 물리적 효용감소와 타인의 반응, 품질에 대한 불만이 중요 폐기 요인이 되고, 정장류에 비해 유행 요인이나 미적 불만 요인의 비중은 적으며 짙증 요인의 비중이 큰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정장류의 경우 격식을 갖춘 옷이 필요한 직장이나 사회적 모임에서 쉽게 되므로 미적으로나 유행에 뒤떨어지고 낡은 느낌이 들면 곧장 폐기하게 되는 반면, 점퍼류는 스포츠나 캐주얼 웨어로 사용되므로 험하게 사용하여 물리적 효용이 감소될 가능성이 높으며, 색, 디자인의 강조가 큰 경우가 많아 짙증이 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정장류에 속하나 착용 범위가 넓고 빈도가 큰 자켓류는 좀 더 격식을 갖춘 의복인 원피스나 투피스에 비하여 물리적 효용감소 요인이 중요 폐기 원인이 되고, 미적인 면이나 유행 요인의 비중이 약간 적으며 사회적 적합성의 비중이 큰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켓이 원피스나 투피스에 비하여 착용빈도가 큰 의복이므로 형태가 변화하거나 웃감이 낡기 쉽고, 착용 범위가 넓어 여러 상황에서 착용하게 되므로 사회적 적합성이 보다 중요한 속성이 되는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자켓이나 투피스 등 겉옷의 안에 착용되거나 단독으로 착용되기도 하는 셔츠, 블라우스류는 미, 사회적 적합성, 다른 옷과의 조화등이 함께 제 1요인을 형성하고, 차지하는 비중이 22.8%로서 <표 3>의 요인들 중 가장 설명력이 크며, 물리적 효용감소나 기능성에 대한 불만 요인이 9.7%, 색,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이들 속성에 대해 삶증을 느껴 의복을 폐기하는 선호,

삶증 요인이 8.0%를 차지하고 있다. 유행 요인은 전체 변량의 6.3%를 차지하여 정장이나 자켓, 스커트 바지류에 비해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즉 외의의 안에 착용하도록 유행 형태보다는 겉옷과 조화가 잘되는 기본적인 형태와 색상이 꾸준히 애용되고 낡은 느낌이 들었을 때 폐기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셔츠나 블라우스와 같은 단품류에 속하나 겉으로 드

<표 3> 의복 유형별 폐기 의사 결정원인의 요인 분석 결과

투피스나 원피스등 정장류(N=190)	자켓류(N=64)	점퍼류(N=53)
<u>요인1 어울림, 선호</u> 15.2%	<u>요인1 물리적 효용감소</u> 18.5%	<u>요인1 물리적 효용감소</u> 18.1%
23. 디자인이 나에게 어울리지 않 는다. .756	9. 세탁에 의해 치수가 변했다. .861	21. 색이 바래고 보풀이 생겼다. .830
10. 색/무늬가 나에게 어울리지 않 는다. .596	26. 오래 입었더니 옷의 형이 변했 다. .839	26. 오래 입었더니 옷의 형이 변했 다. .759
5. 색/무늬가 마음에 들지않는다. .593	21. 색이 바래고 보풀이 생겼다. .689	26. 단추나 지퍼등 부속품이 고장 났다. .703
17.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567	6. 이 옷을 많이 입었더니 더이상 입고 싶지 않다. .430	<u>요인2 타인의 반응, 어울림, 유형</u> 11.4%
24.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좋지않 다. .453	24.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좋지 않 다. .751	24.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좋지 않다. .832
<u>요인2 유행</u> 10.8%	12. 디자인이 유행이 지났다. .708	11. 재단과 봉제가 마음에 들지 않 는다. .661
3. 색/무늬의 유행이 지났다. .772	17.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667	25. 새로 산 다른 옷이 있어 거의 안입게 된다. -.619
7. 옷감의 유행이 지났다. .718	23. 디자인이 나에게 어울리지 않 는다. .565	1. 옷감의 종류와 질이 좋지 않다. .549
12. 디자인이 유행이 지났다. .716	3. 색/무늬의 유행이 지났다. .547	5. 색/무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404
28. 옷이 너무 두껍거나 무겁다. .594	<u>요인3 적합성</u> 8.8%	<u>요인3 삶증</u> 9.3%
3. 색/무늬의 유행이 지났다. .547	19. 옷이 그 옷을 입을 상황에 적합 하지 않다. .882	15. 옷의 디자인에 삶증났다. .901
<u>요인3 물리적 효용감소</u> 9.4%	27. 옷을 입을 기회가 거의 없다. .775	20. 옷의 색/무늬에 삶증났다. .835
21. 색이 바래고 보풀이 생겼다. .778	4. 다른 옷과 조화시키기 힘들다. .558	<u>요인4 취향 변화 어울림</u> 7.3%
26. 오래 입었더니 옷의 형이 변했다. .768	13. 내 나이나 신분, 직업에 맞지 않는다는. .452	22. 내 취향이 바뀌었다. .784
9. 세탁에 의해 치수가 변했다. .686	<u>요인4 색채</u> 6.6%	10. 색/무늬가 나에게 어울리지 않 는다. .704
14. 단추나 지퍼등 부속품이 고장 났다. .646	10. 색/무늬가 나에게 어울리지 않 는다. .819	23. 디자인이 나에게 어울리지 않 는다. .600
<u>요인4 삶증</u> 6.3%	5. 색/무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639	<u>요인5 유행, 다른 옷과의 조화</u> 6.5%
25. 새로 산 다른 옷이 있어 거의 안 입게 된다. .771	8. 입어서 마음이 편하지 않다. .495	28. 옷이 너무 두껍거나 무겁다. .687
15. 옷의 디자인에 삶증났다. .520	<u>요인5 불편</u> 5.8%	3. 색/무늬의 유행이 지났다. .678
20. 옷의 색/무늬에 삶증났다. .497	16. 이 옷을 입으면 거추장스럽고 활동하기 불편하다. .860	12. 디자인이 유행이 지났다. .606
6. 이 옷을 많이 입었더니 더이상 입고 싶지 않다. .493	2. 옷을 관리하고 세탁하기 힘들 다. .507	4. 다른 옷과 조화시키기 힘들다. .591
22. 내 취향이 바뀌었다. .451	<u>요인6 삶증, 취향변화</u> 5.7%	<u>요인6 치수, 디자인 불만</u> 6.1%
<u>요인5 불편</u> 5.5%	문항 번호 15, 20, 25, 22	문항 번호 18, 9, 17
16. 이 옷을 입으면 거추장스럽고 활동하기 불편하다. .828	<u>요인7 옷감 치수</u> 5.2%	<u>요인7 불편</u> 5.5%
8. 입었을 때 마음이 편하지 않다. .687	문항 번호 7, 28, 18	문항 번호 8, 6, 16
2. 옷을 관리하고 세탁하기 힘들다. .625	<u>요인8 선호</u> 4.4%	<u>요인8 적합성</u> 4.8%
<u>요인6 적합성</u> 5.0%	문항 번호 11, 5	문항 번호 13, 19, 27
문항 번호 19, 4, 13		
<u>요인7 품질 불만</u> 4.2%		
문항 번호 11, 1		
총 변방에 대한 설명력 56.5%	66.3%	70.3%

더내 입는 경우가 많은 스커트 바지류는 유행, 삶증, 미적 불만 요인이 1, 2요인을 차지하고 물리적 효용감소 요인이 3번째로서 원피스, 투피스, 자켓 등 정장 외 의류의 요인 분포와 유사하다. 이것은 스커트 바지류가 하의의 실루엣선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므로 유행의 영향을 많이 받고, 외부에 착용하는 만큼 착용자의 취향이나 개성을 드러내므로 미적인 면과 물리적인 상태가

중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3. 의복 폐기 행동에의 영향 변인

의복 폐기 행동을 의복 폐기 요인과 의복 사용기간의 두 측면으로 나누어 이들이 착용자의 연령, 사용 당시 의복에 대한 만족정도, 의복 유형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검증하여 본 결과는 <표 4>, <표 5>와 같다.

셔츠, 티셔츠나 블라우스(N=167)		스커트, 바지류(N=127)	
<u>요인 1</u> 어울림, 적합성	22.8%	<u>요인 1</u> 유행 삶증	25.5%
23. 디자인이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724	3. 색/무늬의 유행이 지났다.	.866
13. 내 나이나 신분, 직업에 맞지 않는다.	.685	12. 디자인이 유행이 지났다.	.848
24.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좋지 않다.	.662	20. 옷의 색/무늬에 삶증 났다.	.576
10. 색, 무늬가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578	7. 옷감의 유행이 지났다.	.547
4. 다른 옷과 조화시키기 힘들다.	.539	15. 옷의 디자인에 삶증 났다.	.533
18. 치수가 잘 맞지 않는다.	.427		
19. 옷이 그옷을 입을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	.377	<u>요인 2</u> 미적불만, 취향 변화	10.5%
<u>요인 2</u> 물리적 효용감소	9.7%	23. 디자인이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793
26. 오래 입었더니 옷의 형이 변했다.	.784	10. 색/무늬가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674
21. 색이 바래고 보풀이 생겼다.	.713	17.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654
9. 세탁에 의해 치수가 변했다.	.705	22. 내 취향이 바뀌었다.	.648
6. 이 옷을 입으면 거추장스럽고 활동하기 불편하다.	.617	8. 입었을 때 마음이 편하지 않다.	.562
14. 단추나 지퍼등 부속품이 고장났다.	.443	24.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좋지 않다.	.401
<u>요인 3</u> 선호, 실증	8.0%	<u>요인 3</u> 물리적 효용감소	8.9%
5. 색/무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732	26. 오래 입었더니 옷의 형이 변했다.	.866
17.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713	9. 세탁에 의해 치수가 변했다.	.808
20. 옷의 색/무늬에 삶증 났다.	.673	21. 색이 바래고 보풀이 생겼다.	.760
15. 옷의 디자인에 삶증 났다.	.610	14. 단추나 지퍼 등 부속품이 고장났다.	.638
<u>요인 4</u> 유행	6.3%	<u>요인 4</u> 품질 불만	6.1%
12. 디자인이 유행이 지났다.	.870	11. 재단과 복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850
3. 색/무늬의 유행이 지났다.	.852	1. 옷감의 종류와 질이 좋지 않다.	.616
7. 옷감의 유행이 지났다.	.713	5. 색/무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486
<u>요인 5</u> 불편	5.1%	<u>요인 5</u> 적합성	4.8%
16. 이 옷을 입으면 거추장스럽고 활동하기 불편하다.	.770	4. 다른 옷과 조화시키기 힘들다.	.752
2. 옷을 관리하고 세탁하기 힘들다.	.743	19. 옷이 그 옷을 입을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	.570
28. 옷이 너무 두껍거나 무겁다.	.681	13. 내 나이나 신분, 직업에 맞지 않는다.	.566
8. 입었을 때 마음이 편하지 않다.	.627		
<u>요인 6</u> 착용 기회 상실	4.7%	<u>요인 6</u> 불편	4.4%
문항 번호 25, 22, 27		문항 번호 2, 16	
<u>요인 7</u> 품질 불만	3.8%	<u>요인 7</u> 삶증, 새로움 추구	4.2%
문항 번호 1, 11		문항 번호 6, 25	
총 변량에 대한 설명력	60.4%		63.6%

1) 의복 폐기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① 착용자의 연령에 따른 폐기 요인의 차이

의복 사용자의 연령을 대학생 연령인 만22세 이하, 23~29세, 30~39세, 40세 이상의 4집단으로 나누고, 연구문제 1의 일반 의복 폐기 요인에 따른 분류를 사용하여, 집단에 따라 각 요인 점수에 차이가 있는가를 일원 변량 분석과 Duncan Test를 이용해 알아본 결과는 <표 4> ①과 같다.

<표 4> ①에 따르면 물리적 효용감소나 유행변화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고, 적합성에 대한 불만, 품질 불만, 삶증 취향 변화, 불편요인에서 유의차가 나타나고 있다. 즉 나이에 관계 없이 유행이 지났거나 옷이 낡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그 옷을 폐기하며, 착용자에 적합하지 않거나, 옷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삶증이 나거나 불편하여 폐기하는 경우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난다.

적합성에 대한 불만 요인과 품질 불만 요인에서는 40세 이상 집단 만이 다른 집단보다 유의하게 낮은 평균 점수를 보이고 삶증, 취향변화 요인에서는 30세 이상 집단들이 30세 미만 집단들에 비해 낮은 평균점수를 보이며, 세 요인에서 공통적으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평균 점수가 낮아진다. 이러한 현상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취

향이 고정되어 삶증을 덜 내고, 의복을 신중하게 구매하여 자신에게 적합하고 마음에 드는 옷을 선택함으로써 이런 원인들로 인하여 폐기되는 옷이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편 요인에서는 22세 이하 집단과 40세 이상 집단이 중간 연령대에 비해 요인 점수가 낮게 나타나는데, 22세 이하 집단은 활동에 지장을 주지않고 부담스럽지 않은 캐주얼웨어를 주로 입으므로 불편을 느낄 확률이 적고, 40세 이상의 나이든 집단은 미보다는 편한 것을 좋아하게 되기 때문에 편한 옷을 주로 구입하므로 불편을 느껴 옷을 폐기하는 경우는 적기 때문일 것이라 추측된다.

② 의복 만족도에 따른 폐기 요인의 차이

의복 사용 당시의 만족정도를 5단계로 나누어 단계별로 폐기요인에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는 <표 4> ②에 제시되어 있다. 유행변화나 삶증, 취향변화와 같이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요인에서는 만족정도에 따라 폐기 요인 점수의 차이가 없어 유행이 바뀌거나 삶증이 났거나 취향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만족도에 관계없이 의복을 폐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적합성에 대한 불만, 품질 불만, 불편요인에서는 만족 정도가 높을수록 요인 점수가 적어져, 만족한 옷은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불만이 적고 폐기의 직접 원인이 되지 않

<표 4> 연령, 의복만족도에 따른 폐기 요인의 차이

요인	① 연령에 따른 폐기 요인의 차이					② 의복 만족도에 따른 폐기 요인의 차이					
	만22세 이하 (N=248)	23~39 이하 (N=139)	30~39 이상 (N=90)	40세 이상 (N=95)	F값	매우 불만 (N=17)	불만 (N=76)	그저 그렇다 (N=287)	만족 만족 (N=171)	매우 만족 (N=21)	F값
	20.3 B	21.0 B	20.4 B	18.7 A	5.51***	22.8 B	21.5 B	20.7 A	18.9 A	17.4 A	10.00***
적합성에 대한 불만	10.2	10.1	9.7	10.1	.67	7.6 A	9.2 A	10.3 B	10.4 B	10.2 AB	4.50**
물리적 효용감소	9.3	9.8	9.7	9.2	1.55	9.4	9.1	9.6	9.4	9.3	.63
유행변화	11.0 B	10.7 B	10.5 B	9.6 A	6.25***	11.6 D	11.9 D	11.0 CD	9.6 B	7.7 A	20.80***
품질 불만	16.5 B	16.5 B	16.1 A	15.1 A	4.07**	14.9	15.8	16.3	16.1	16.7	1.05
삶증취향 변화	13.0 A	13.8 B	13.8 B	12.9 A	2.94*	14.4 C	14.4 C	13.4 B	12.7 A	12.3 A	4.30**
불편											

* F값 유의 수준 : *** 0.001 이하, ** 0.01 이하, * 0.05 이하

* ABCD는 Duncan Test 결과, A<B<C<D 순서

* 숫자는 각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 점수들 합계의 평균값

는다는 것이 나타났으며, 물리적 효용감소 요인에서는 만족한 웃일수록 요인 점수가 커져 만족스러운 웃은 자주 입고 오래 사용하므로 낡아서 폐기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앞서 일반적 의복 폐기 요인에서 지적한 바와 같아 소비자들은 성공적으로 구매를 해서 마음에 드는 옷을 구입하면 자주 오래 착용하고, 유행 변화나 삶의 변화에 따라 재외하고는 물리적으로 낡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의복을 폐기하게 된다.

2) 의복 사용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의류 소비자가 의복을 구입한후 폐기 의사가 생길때
까지의 소요 기간을 의복 사용기간이라 정의하고 의복
사용 기간이 의복 유형, 연령, 그 의복에 대한 사용 당
시의 만족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가를 일원 변량분석과
Duncan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해 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① 의복 유형별 사용 기간

5 가지 의복 유형 별 사용 기간은 <표 5> ①과 같다.

의복 유형별 평균 사용 기간을 살펴보면, 정장류가 가장 길고, 그 다음이 점퍼류이며 자켓류, 스커트 바지류, 셔츠류가 가장 짧게 나타났다.

즉 사회적 위협이 크고 가격이 비싸며, 착용빈도가 비교적 적은 정장류를 가장 오래 사용하고, 일상 생활에서보다는 레저나 스포츠용으로 사용되는 점퍼류는 착용할 기회가 적어 사용기간이 비교적 길다. 반면, 자켓 셔츠류, 스커트나 바지류는 일상 생활에서의 착용빈도가 높고, 단품류로서 비교적 가격이 싸서 자주 구입하므로 사용기간이 짧다고 생각된다.

② 연령 집단에 따른 사용 기간의 차이

연령 집단에 따른 사용 기간의 차이를 일원 변량 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기에 앞서, 전체응답자를 취업 결혼 상태에 따라 대학생, 미혼 직장 여성, 전업 주부, 취업 주부로 나누어 각 집단별 의복 사용 기간의 차이를 알아 보았다. 그러나 집단의 영향력과 함께 연령의 영향력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여 연령을 공변인으로 하여, 공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결혼 취업 상태에 따라 분류된 집단에 의한 주효과는 F 값이 1.53, 유의 수준이 .190으로 나타나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변인인 연령의 F 값이 72.00로서, .000 수준의 유의차를 보여 결혼 취업에 의해 분류된 집단의 영향력보다 연령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관한 사용 기간의 차이를 보다 자세히 알아보

<표 5> 의복 유형, 열렸, 의복 만족도에 따른 의복 사용기간의 차이

① 원복 윤현에 따른 사용기간의 차이

의복유형 사용기간	џ포류 (N=54)	자켓 (N=65)	정장류 (N=191)	셔츠류 (N=170)	스커트 바지류 (N=127)	F값 유의수준
평균(년수)	3.5	2.9	4.2	2.9	2.9	73.98***
	B	A	C	A	A	

② 영령 접두어 사용 기간의 차이

연령집단 사용기간	22세 이하 (N=252)	23~29세 (N=139)	30~39세 (N=90)	40세 이상 (N=96)	F값 유의수준
평균(년수)	2.563 A	3.374 B	4.344 C	4.438 C	31.81***

③ 의복·만족도에 따른 사용기간의 차이

의복만족도 사용기간	매우불만 (N=17)	불만 (N=76)	그자그렇다 (N=292)	만족 (N=172)	매우만족 (N=21)	F값 유의수준
평균(년수)	3.529	2.790	3.220	3.721	4.048	3.70**
	AB	A	A	B	B	

* F검정 유의 수준: *** 0.001 이하, ** 0.01 이하, * 0.05 이하

* ABCD는 Duncan Test 결과. A < B < C < D 순서

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를 살펴보았고, 연령을 기준으로 집단을 나누어 일원적 변량 분석과 Duncan Test 를 실시하였다.

Pearson 상관관계는 상관계수가 .36로서 신뢰도 .000수준에서 유의하여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의복 사용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알 수 있고 연령 집단별 사용기간의 차이를 알기 위해 대학생 연령인 만 22세 이하, 23~29세 30~39세, 40세 이상 집단으로 나누어 일원 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 ②와 같다. 각 집단별 사용 기간의 평균을 살펴보면, 나이가 많아질수록 사용 기간이 길어져, 22세 이하 집단이 가장 짧고, 23~29세 집단이 중간이며, 30세 이상의 두 집단이 앞의 두 집단에 비해 사용 기간이 긴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집단별로 분석해 보면, 나이가 적은 집단은 유행에 민감하고, 캐주얼 웨어 중심으로 가격이싼 단품류를 주로 입으므로 교체가 쉽고, 앞서 의복 폐기 요인에서 보았듯이 짧을수록 적합성, 품질에 대한 불만과 실증 취향변화가 커서 이러한 불만이 의복 폐기로 이어지게 되므로 사용기간이 짧아진다. 반면, 나이가 많은 집단은 유행을 따르기 보다는 자신에게 적합한 의복을 선택하고, 품위를 고려하여 가격이 비싸고 품질이 좋은 고가의 정장류를 선호하므로 사용 기간이 길어진다고 생각된다.

(3) 의복 만족도에 따른 사용 기간의 차이

폐기했거나 폐기하려는 의복의 사용 당시의 만족 정도를 5단계로 나누고 만족도와 사용 기간의 관계를 Pearson 상관 관계와 일원 변량 분석을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상관계수는 .15로서 신뢰도 .001 수준에서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어 만족 정도가 높을수록 의복 사용 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원 변량 분석 결과에서도 매우 불만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족 정도가 높을 수록 오래 입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을 앞서 나타난 결과인, 만족 정도가 높을수록 물리적 효용감소 요인이 폐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는 현상과 관련지어 보면, 만족한 옷일수록 자주 착용하고, 옷이 낡았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입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매우 불만족한 옷은 불만족이나 보통의 경우에 비해 사용 기간이 긴 것을 볼 수 있는데, 옷이 마음에 안들어 거의 착용하지 않고 낡지 않아 버리기엔 아까워 옷장 속에 사장하는 기간이 길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의복 폐기 행동을 폐기 의사 결정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995년 5월 24일에서 6월 3일에 걸쳐 여대생, 미혼 취업여성, 주부, 취업 주부 610명을 대상으로 최근 폐기하였거나 폐기 할 의사가 있는 봄 가을용 외출복 한 벌에 대하여, 의복의 유형, 사용 기간, 구입 가격, 착용 빈도, 사용 당시의 만족 정도를 묻고 그 의복을 폐기하려는 이유에 대하여 28문항의 설문지를 개발하여 조사하였다.

610명을 대상으로한 610벌의 의복에 대한 폐기 원인을 요인 분석한 결과, 6개의 요인으로 묶여 적합성에 대한 불만, 물리적 효용감소, 유형변화, 품질 불만, 짙증, 취향변화, 불편 요인으로 명명되었고, 이 6요인이 총 변량의 52.7%를 설명하였다. 적합성에 대한 불만 요인은 미적으로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거나, 사회적으로 적합하지 않아 소유 의복을 폐기하는 경우이고, 물리적 효용감소 요인은 찾은 착용과 반복 세탁에 의해 옷이 낡은 느낌이 들거나, 부속품이 고장나 폐기하는 경우이다. 유형 요인은 색/무늬, 디자인, 옷감의 유행이 지나서, 품질 불만 요인은 옷의 색/무늬, 디자인, 재단, 봉제등이 마음에 안들어서, 짙증 취향 변화 요인은 새로산 다른 옷이 있거나, 옷에 대해 짙증을 느껴 의복을 폐기하는 경우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밖에 의복 착용시 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심리적으로 불편을 주어 의복을 폐기하게 되는 불편 요인이 추출되고 있다. 6가지 요인중에 물리적 효용감소 요인, 유형 변화, 짙증 취향 변화 요인은 반복 사용이나 시간 경과에 따른 효용 감소가 효용감소 원인이 되나, 적합성에 대한 불만, 품질 불만, 불편 요인들은 의복 자체에 대한 불만, 즉 잘못 구입에 대한 후회가 폐기 원인이 되고 총 변량의 29.4%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자원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면에서 볼때 매우 비생산적이므로 소비자의 신중한 구입이나 판매자의 전문적인 조언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의복 유형에 따라 폐기 요인이 달라질 것이라는 가정 하에 원피스, 투피스 등 정장류, 자켓류, 점퍼류, 셔츠, 티셔츠나 블라우스류, 스커트나 바지류의 5 유형 의복의 폐기 원인을 조사한 결과, 의복 유형별로 폐기 원인이 다르게 나타났다.

외의 정장류에 속하는 원피스나 드레스, 자켓의 폐기 원인은 미적 속성이나 유행, 타인의 반응, 물리적 효용 감소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정장성은 조금 약하나 외의에 속하는 스커트, 바지류는 비, 유행 요인 이외에 삶증 물리적 효용감소 등이 중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외의 캐주얼 웨어에 속하는 점퍼류는 물리적 효용감소, 품질 불만, 삶증이 중요 폐기 요인이 되고, 중의류로 겉옷의 안에 주로 착용하는 셔츠, 티셔츠, 블라우스류는 어울림, 적합성 요인, 물리적 효용감소 요인, 선호 삶증 요인이 중요하게 나타났다.

다음은 의복 폐기 행동을 의복 폐기 요인과 의복 사용 기간으로 나누어, 의복 폐기 요인과 연령, 의복 만족도와의 관계, 의복 사용 기간과 의복 유형, 연령, 의복 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의복 폐기 요인의 연령별 차이를 대학생 연령인 만 22세 이하 집단, 23~29세, 30~39세, 40세 이상 집단 사이에서 검증해보았더니, 물리적 폐기, 유행 변화 요인에서는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았고, 적합성에 대한 불만, 품질 불만, 삶증 취향변화 요인에서 나이가 적을수록 요인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불편요인에서는 만 22세 이하 집단과 40세 이상 집단이 낮고 23~40세 집단은 높았다.

즉, 나이가 적은 집단이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거나, 마음에 안들거나, 삶증을 느껴 의복을 폐기하는 경우가 많으며, 웃이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불편을 주어 폐기하는 경우는 22세이하나 40세 이상 집단에 비해 23~39세 까지가 많게 나타났다. 의복 만족 정도에 따라서는 만족한 의복 일수록 웃이 낡아져서 폐기하는 경우가 많고, 적합하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 않거나, 불편하여 웃을 폐기하는 경우는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 사용 기간은 의복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여 서츠류, 스커트 바지류, 자켓류는 사용 기간이 짧고, 점퍼류나 정장류는 사용 기간이 길었다. 연령 집단에 따라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길어졌고, 의복 만족도에 따라서는 매우 불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족할수록 사용 기간이 길어졌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보면, 마케팅 관리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제언이 가능하다. 먼저 폐기 요인에 있어서는 의복 선택에 대한 후회가 총 변량의 29.4%를 차지하는 만큼, 이를 줄이기 위한 소비자와 판매업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의류 소비자는 의복을 선택할 때에 좀 더 신중한 의사 결정을 하여야 하고, 제조업자는 소비자의 사용시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러한 소비자의 요구를 바탕으로 현실성 있는 시장 세분화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또한, 판매자는 판매원들을 훈련하거나 패션 컨설턴트들을 고용하여 매출액의 증대보다는 소비자가 진정으로 만족하는 의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학문적인 측면에서는 의복의 폐기 단계가 매우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된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의복의 폐기 단계에서 소비자는 한 의복의 구매 직후부터 사용기간, 사장기간에 대한 기억을 통해 전체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고 불만족한 의복에 대한 정확한 평가도 내릴 수 있다. 그러므로 폐기 단계에 대한 여러 측면의 연구가 많이 행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 1) Winakor, G., The Process of Clothing Consumption., *Journal of Home Economics*, 61(8), 629-634, 1969.
- 2) Neverka, M.J., Inactive Clothing of Selected Famil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Iowa State University, Ames. 1974. in Shim Soyeon, Environmentalism and Consumers' Clothing Disposal Patterns: An Exploratory Study, *Clothing and Textile Research Journal*, 13(1), 38-48, 1995.
- 3) Hanson, J.W., A Proposed Paragon for Consumer Product Disposition Process, *Journal of Consumer Affairs*, 14(1), 49-67, 1980.
- 4) Shim Soyeon, Environmentalism and Consumers' Clothing Disposal Patterns: An Exploratory Study, *Clothing and Textile Research Journal*, 13(1), 38-48, 1995.
- 5) Holbrook, M.B., & Hirschman, E.C., The Experiential Aspects of Consumption: Consumer Fantasies, Feelings and Fu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9, 132-139, 1982.
- 6) Batra, R., & Ray, M.L., Affective Responses Mediating Acceptance of Advertising, Working Paper, Graduate School of Business Columbia Univ., In 최선흥 의류 제품의 감정적 반응이 태도 형성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3.
- 7) Oliver, R.L., & Westbrook, R.A., The Dimensionality of Consumption Emotion Patterns and

- Consumer Satisfac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8, 84-91, 1991.
- 8) Burns M.J., et al., Comparing Consumers' Recall of Prepurchase and Postpurchase Product Evaluation Experience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0, 548-560, March 1994.
- 9) 최선흥, 의류 제품의 감정적 반응이 태도 형성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3.
- 10) Cowling, K., & Cubbin, J., Price, Quality, and Advertising Competition: An Econometric Investigation of the United Kingdom Car Market, *Economica*, 38, 378-394, Nov, 1971.
- 11) Maynes, E. S. Decision Making for Consumers: An Introduction to Consumer Economics, New York: Macmillan, 1976.
- 12) Olson, J.C. & Peter J.P., Consumer Behavior and Marketing Strategy 2nd ed., Irwin, Boston. 1987.
- 13) Gutman, J., A Means-End Chain Model Based on Consumer Categorization Processe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6, 433-441, 1990.
- 14) Zeithaml, V., Consumer Perceptions of Price, Quality and Value: Means-End Model and Synthesis of Evidence, *Journal of Marketing*, 52, 2-22, 1988.
- 15) Ryan M.S., A Study of Factors in the Selection and Care of Blouses Which Relate to Consumer Satisfaction, *Journal of Home Economics*, 46(3), 146-155, March 1954.
- 16) 김미영, 의복 구매과정에 따른 의복 평가기준의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6(3), 1992.
- 17) Finalayson, B.B., An Investigation of Consumer Motivation in the Selection of Sweaters as Related to General Personal Valu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ornell Univ., in Creekmore, A.M., ed., Methods of Measuring Clothing Variables, 58-64, 1966.
- 18) Blackwell, R.D., & Hillker, J.A., Clothing Decisions: A Decision Process Analysis of Focused Group Interviews,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5, 1978, 743-749.
- 19) Stemm, F.A., Clothing Attitudes and Evaluative Criteria used by Employment Women Differing in Feminine Role Orientation and Work Orientation: Emphasis on the Single-Again Adult., Unpublished PHD, Ohio State University. in 김미영 생활 양식 유형과 의복 평가 기준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1992.
- 20) 홍금희, 의복 만족의 종격 연구 -기대 선행 변수에 따른 기대와 제품 성과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2.
- 21) Conklyn, N.B., Consumer Satisfaction with Dress Purchases Made in a Large Midwest Department Store, Doctoral Dissertation, Purdue University, 1971.
- 22) McAlister, I., A Dynamic Attribute Satiation Model of Variety Seeking Behavior,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9, 141-150, 1982.
- 23) Raju, P.S., Optimum Stimulation Level: Its Relationship to Personality, Demographics and Exploratory Behavior,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7, 272-282, 1980.
- 24) Sproles, G.V., Fashion: Consumer Behavior Toward Dress. Minneapolis: Burgess Publishing Company, 1979.
- 25) Ryan, M.S., Clothing: A Study in Human Behavior,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6.
- 26) Francis, S.K. & Dickey, L.E., Dimensions of Satisfaction With Purchases of Women's Dresses: Before and After Garment Care,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8, 153-168, 1984.
- 27) Swan, J.E., & Combs, L.J., Product Performance and Consumer Satisfaction: A New Concept. *Journal of Marketing*, 40, 25-43, 1976.
- 28) 유태준, 의복 구매 불안 척도의 개발, 효성여대 논문집, 제44집, 287-309, 1992.
- 29) 이영선, 소비자의 의복 판여와 의복 정보 탐색,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2.
- 30) 최은영, 의복에 대한 소비자 관여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1.
- 31) 민동원, 기성복의 구매 및 사용시 불만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6.
- 32) 지혜경, 의류제품의 구매과정에 나타난 소비자 불만족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4.